

제36회 경남연극제 폐막, 극단 예도〈나르는 원더우먼〉단체대상 차지

- 4월 4~15일, 12개 지부 13개 극단 참여, 연일 매진 등 성황리에 마쳐
- 한경호 권한대행, “적극적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으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도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경남도는 ‘제36회 경상남도연극제’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정대균 MBC경남 대표이사, 진주시 부시장, 경남예총회장 등 12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폐막식 가졌다고 밝혔다.

제36회 경상남도연극제 단체대상은 극단 예도(나르는 원더우먼)이, 개인연기대상은 극단 미소의 천영훈과 극단 예도의 김현수가 수상하였다. 단체대상을 수상한 극단 예도는 대전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경남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연극제는 4월 4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2개 지부, 13개 극단이 참여했으며, 진주 극단 ‘현장’의 주 무대인 현장아트홀과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에서는 다양한 연극 경연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력있는 가수들의 버스킹공연, 금관 5중주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를 연극 전에 실시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경남연극제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과 우리나라 연극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연극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는 적극적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펼쳐 연극계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도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과 예술진흥담당
민정은(055-211-4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